

재해사례

이천 물류센터 화물차 기사 지게차에 깔려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물차 기사 지게차에 깔려 사망

2025년 9월 17일(오전 5시 54분경),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는 해당 물류센터에 입점한 편의점 음료 유통업체의 하역 작업 도중,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발생원인

- ◎ 동선 분리 미흡
 - 보행자 전용 통로·지게차 전용로 구획 부족
 - 물리적 차단(웬스/체인/콘) 부재로 하역구역에 보행자 진입
- ◎ 시야·경고체계 부재
 - 지게차 전방 사각지대, 포크 주행 높이 미준수
 - 전·후방 카메라/파노라마 미러, 포크 최저 위치 주행 준수
 - 카메라/미러 부족, 적재물·기둥 등에 의한 가림
- ◎ 절차·교육·감시 체계화
 - 신호수 미배치, 표준 핸드시그널·접근 승인 절차 부재
 - TBM(작업 전 안전회의)·위험성평가 형식화로 위험 인지 부족
 - 하역 중 운전자 하차 통제·대기존 지정 미비



<해당 상황>

재해사례

이천 물류센터

화물차 기사 지게차에 깔려 사망

재해예방 대책

- ◎ 동선 완전 분리 및 통행관리
 - 지게차 전용로/보행 금지구역 바닥도색, 바리케이드·체인 게이트 설치
 - 일방통행, 교차부 고임목·휠초크, 속도제한 5~8km/h 운영
 - 도크 운전자 대기존 지정, 하역 중 임의 하차 금지

- ◎ 가시성, 경고 및 설비 개선
 - 지게차 블루/레드스팟, 경광등·경적 의무화
 - 전·후방 카메라/미러 설치 + 포크 최저 위치 주행

- ◎ 작업절차 · 교육 · 감시 체계화
 - 작업허가제 + 신호수 배치 + 표준 핸드시그널 적용
 - TBM·근접사고 리뷰 정례화(필요 시 UWB/RFID 근접경보 도입)